



봉녕사 경내 탑 주변에 앉아 포교국장 의천 스님과 명상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의천 스님은 죽비소리를 내며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 겁니까?"라는 화두를 참가자들에게 내렸다.



참가자들이 맨발로 걷기명상 수행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발우공양 오계송을 읊고 있는 모습



지옥중생을 제도한다는 대종의식 체험모습



참가자들은 매일 새벽·저녁 봉녕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과 예불을 올렸다.

청정한 스님의 삶 통해 '소욕지족' 알았어요

봉녕사, 재가여성 '단기 출가' 템플스테이 체험기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이 껍데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말로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재은·21세)

"평소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지루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스님들이 왜 존경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소욕지족(少欲知足)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다." (이윤선·27세)

"가족을 위해서만 살다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 좋았다.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임명숙·58세)

7월 31일 오전, 수원 봉녕사(주지 자연) 우화궁 법당에서 눈물과 웃음이 터져 나온다. 20~60대로 구성된 20명의 여성불자들이 4박 5일간 단기출가를 하면서 느낀 소감들을 나누고 있다.

최초 비구니 율원으로 비구니 계율의 상징이 된 수원 봉녕사가 여성 재가자를 대상으로 7월 27~31일 단기출가학교를 연 것. 이곳에 기차도 함께 참여해 비구니 스님의 삶을 체험했다.

속세와 연(緣)을 끊다

7월 27일 첫날, 20~60대 여성들이 하나 둘 씩 모였다. 혼자 온 대학생, 휴가를 내서 온 직장인, 엄마와 함께 온 딸, 마산·부산에서 온 사람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4박 5일간 우리를 이끌어줄 봉녕사 포교국장 의천 스님, 도생·법성 스님이 나눠준 범복과 고무신을 신고 우화궁 법당에 올라가 입재식을 가졌다.

주지 자연 스님은 입재식에서 "4박 5일간 단기출가를 통해 왜 삼보를 존경하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지 스님들의 삶을 통해 배우길 바란다"며 "봉녕사 승가대학에 있는 비구니 스님들과 새벽예불도 드리고 법공양도 들으며 출가의 삶을 천천히 따라하면서 신심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양간으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 사찰 음식연구소를 운영하는 사찰이어서인지 저녁공양은 사찰식 떡볶이, 튀김만두, 산채나물 등 다양한 메뉴로 준비돼 있었다. 맛있는 저녁공양 후 입적하신 묘연 스님의 감각과 손길이 곳곳에 묻어낸 도량의 경내를 둘러보니 마치 리조트로 휴가를 온 기분이었다. 이렇게만 4박 5일을 보낸다면 사찰에서 보내는 것도 참 괜찮겠다 싶었다.

참가자들은 이후 의천 스님에게 수계식 습의를 받은 뒤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등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했다. 속세와의 연(緣)을 끊고 진정한 출가자의 삶이 무엇인지 느끼기 위해서다. 곧이어 9시가 되자 모두들 우화궁 대법당에서 취침에 들었다.

스님들의 삶 따라해보기

새벽 3시, 사찰 내 타종소리에 도반들이 일어났다. 평소 자고 있을 시간에 눈을 뜬

다는 것이 고역이었다.

학인 스님들이 조용히 줄을 지어 대웅전인 대적광전으로 향했다. 우리들도 곧 뒤따랐다. 새벽예불을 본 뒤 곧바로 팔관제계수계식이 진행됐다. 팔관제계란 8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며, 수련회 기간 동안 언행을 삼가며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봉녕사 금강 율원장 적연 스님이 계사 스님으로 계를 내리며 "(팔관제계를 수지하면) 마음에 문이 열려 밝아지게 된다. 이것

20~60대 20명 재가여성 핸드폰 등 반납 5일 출가

이 시간을 뛰어넘는 올바른 인연이 되는 것이므로 그 무한한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반들은 만의(緩衣)를 입고 계사 스님에 따라 팔관제계를 암송했다.

"모든 생명을 보살피고 존중하겠습니다. 만족함을 알고 남을 위해 베풀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겠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밝은 지혜로 바른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귀공상장신구를 하거나 화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거나 호화로운 방식과 침상을 쓰지 않겠습니다. 때 아닌 오후에 먹지 않습니다." 4박 5일간 우리들은 귀고리 등 장신구와 시계도, 매일 하던 화장도, 손에 쥐고 있지

않던 불안한 핸드폰과 전자기기 모두 내려놓은 채 일정한 계율에 따르기를 약속했다. 이제 계를 받은 행자가 된 것이다.

잡간의 휴식과 아침공양 후 의천 스님의 도량안내가 있었다. 이후 곧바로 적연 스님의 다도명상시간. 적연 스님은 선차음다법을 소개했다. 눈은 차의 빗길을 보고, 코는 차의 향기를 맡으며 입으로는 차 한모음을 머금고 청량한 기운을 느끼라고 한다. 차 한잔에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적연 스님 말씀에 열심히 내 욕심을 내려놓아본다.

곧이어 발우습의시간. 의천 스님은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낸다.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덕이 있나 생각하면서 공양하길 바란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모두와 함께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도와준 모든 분들을 축원하면서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가자들은 직접 밥과 찬을 나누고 조심스럽게 공양을 시작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양을 하다보니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도반도 있다.

이후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의 소참 법문이 진행됐다.

도일 스님은 "현대인들이 괴로운 이유가 남들과 비교해서다. 불교의 소욕지족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행복의 원천은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 공이다. 팔관제계는 나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자기발견 시간. 나와 내 주변인과의 고민과 갈등을 의천 스님이 짚어준 도

반과 이야기를 나눴다.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경청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다. 청소윤력 및 세번 후 도반들과 학인 스님의 법고·대종의식을 지켜봤다.

"법고는 날짐승을 제도하고 대종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고 목어는 바다 속 중생을 제도합니다." 의천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다시 새벽 때처럼 학인 스님들이 줄지어 대적광전으로 저녁예불을 드리러 올라간다. 우리도 따라갔다. 예불 뒤 경전독송과 포행·명상·불교요가가 이어졌다.

8가지 팔관제계 수지 행사 "모든 생명 보살피고 존중"

때가 아니면 먹지 않는 오후불식의 법을 따르니 배가 고프고 머리가 멍해진다.

스님의 삶과 출가인식 바뀌어

다음날, 새벽 3시에 일어나 전날처럼 새벽예불을 올렸다. 이후 대법당으로 돌아와 108염주를 조성했다.

내가 만든 염주를 목에 걸고 도량 바깥으로 걷기명상을 떠났다.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오로지 내 마음, 이 순간에만 집중한다. 이후 봉녕사 학장 도해 스님의 강의가 진행됐다. 스님의 출가 인연담을 들었다. 9세에 동진출가한 스님은 행자생활이 힘든 줄 모르고 아무 의심도 없이 무조건 믿고 스편지처럼 받아들였다고 한다. 살아가는 것도 그

렇게 사랑을 짓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나아가야겠다고 속으로 다짐해냈다.

다담과 자유명상 후 마하연 사찰음식문화원 원장 우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가 진행됐다. 가지열무김치, 애호박두부양념찜, 깻잎감자전을 시연해 보였다.

"사찰음식은 수행식·감사식·평등식"이라고 강조한 우관 스님은 "장은 담근지 3년이 지나 사용하고 효소는 발효 후 5년이 지나야 쓸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두고 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효소를 담그며 배웠다"며 사찰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사브리나코치 강의, 자연 스님의 사찰문화 강의 등을 듣고 마지막 계를 반납하는 환계식을 가졌다.

이후 회향식에서 자연 스님은 "이번 프로그램 통해 출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사회에 나가서도 수지한 팔관제계를 통해 자기를 변화시키고 더불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향날이 되자 참가자들의 얼굴에 밝은 빛이 감돌았다. 계율지키기와 발우공양, 목연과 명상수행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었던 스스로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졌다.

4박5일이라는 시간동안 이들의 마음에는 불교에 대한 희망, 스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나를 찾고자 하는 발심의 씨앗이 새겨졌다. 수원 봉녕사=이내온 기자 사진제공=봉녕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지발발속양초

① 약썩초 90cm x90cm
② 약썩초 밀대 4.7f x25cm
③ 약썩초 3호 4.7f x13cm
④ 약썩초 3호 반야심경 4.7f x13cm
⑤ 약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⑥ 약썩초 연봉 원기동 7.0f x34cm
⑦ 약썩초 1호 5.9f x18cm
⑧ 약썩초 4호 4.7f x10cm
⑨ 약썩초 2호 반야심경 5.9f x18cm
⑩ 약썩초 2호 연봉 원기동 7.0f x34cm
⑪ 약썩초 2호 5.9f x14cm
⑫ 약썩초 4호 반야심경 4.7f x10cm
⑬ 약썩초 1호 반야심경 5.9f x18cm
⑭ 약썩초 연봉 원기동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곰)

한뫼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 x90cm
② 밀납초 밀대 4.7f x25cm
③ 밀납초 3호 4.7f x13cm
④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f x13cm
⑤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⑥ 밀납초 연봉 원기동 7.0f x34cm
⑦ 밀납초 1호 5.9f x18cm
⑧ 밀납초 4호 4.7f x10cm
⑨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f x18cm
⑩ 밀납초 2호 연봉 원기동 7.0f x34cm
⑪ 밀납초 2호 5.9f x14cm
⑫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f x10cm
⑬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f x18cm
⑭ 밀납초 연봉 원기동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곰)

도자기 인동

인동용 파리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삼환양초

원기둥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흰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